

##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후 미·북관계 전망

###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이 마침내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2월 24일 로켓발사를 예고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며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전면적 군사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한지 석 달만의 일이다. 더 길게 보면 작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남 비방을 시작한지 일 년여 만의 일로서 한반도 긴장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일 년간 대남 비방과 협박을 하던 북한은 한국이 협박에 움직이지 않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과의 담판을 노리고 있다. 즉, 로켓발사를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이 개최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며 미국의 포용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반기면서도 경제문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것이다. 즉, 로켓을 통해 미·북양자회담의 긴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닌 위성 발사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과의 갈등이 아니라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안보리 상정만 해도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미·북 양자대화를 노리는 의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은 미·북협상을 대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왕성한 현지지도를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내부 여력을 보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관계강화 노력도 대미협상을 앞둔 레버리지의 강화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대남 군사협박과 로켓 발사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로켓 발사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718’ 위반이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과잉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3월 10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인 것 같다고 하였으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3월 29일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아직 알래스카에 미칠 능력이 안 된다고 평가하며 이를 요격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통미봉남 의도를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보즈워드 특별대표는 로켓 발사 이틀 전 “압박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며 인센티브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암시하였다.

실제로 로켓발사 후 북한에 대한 페널티 논의와 일정기간의 냉각기가 끝나면 미·북대화가 재개되고 미·북관계가 일정 부분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로켓 발사 후 미·북대화가 앞당겨지고 북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플루토늄 관련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추후 문제로 미룬다면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제한적인 검증에 합의하고 플루토늄 관련 핵시설의 폐기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 고위인사의 상호 방문과 북한예술단의 뉴욕 공연이나 여자 축구팀의 방

미 시합과 같은 이벤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핵화에 관한 미·북간 입장 차이를 고려 할 때, 미·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밀고 당기는 험난한 협상과정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지리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대내외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이는 북한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협상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베트남의 경우 풍부한 식량이 있었고, 정치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핵폐기 선언을 하고 6개월 후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2년 6개월 후인 2006년 5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리비아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을 누렸기 때문에, ‘과도기’를 견딜 수 있었다.

반면, 리비아나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외적으로 남한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으며 급증하는 대중국 무역적자는 북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북관계의 진전분위기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긴장고조 보다는 경협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미·북관계 진전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태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통미봉남에 대한 남한 정부의 초조감과 남남갈등을 이용하여 남한으로부터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남한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이를 다시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로켓발사는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마지막 승부’를 위해 허세(bluffing)를 부리고 있다. 대남 군사적 위협을 서슴지 않고 수억 달러를 들여서 로켓을 발사하는 한편,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선물비용으로 수억 달러를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외화를 과용하는 엄청난 모험을 한 것이다. 북한이 이번 도박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북한의 처지는 정말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